

# 코로나19 전후 도농 소득 변화 비교

A Comparison of Changes in Urban and Rural Income during the Covid-19 Period

**이주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태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전후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9년 이후 소득을 비교해 보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분기별로도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농어촌 주민은 3분위 이하에 약 40%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 반면, 도시 주민은 20%대로 농어촌 주민이 상대적으로 하위 그룹에 많이 분포해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약 20% 이상)은 도시 지역(10%대 초반)에 비해 상대빈곤율이 대체로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은 소득 저분위에 여성, 노인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코로나19를 전후로 농어촌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및 중장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기 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 1. 들어가며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2021년 11월 일상 회복 전환을 통해 일부 희망적인 모습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변이바이러스인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었고,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은 더디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수행한 사회보장 국민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0년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27.4%,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14.1%로 조사되어 2021년에는 소득 감소 가구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가구는 생계에 대한 위협을 받

고 있다(김태완 외, 2021, p. 47). 소상공인으로 영역을 좁혀 보면, 2019년 대비 2020년 사업체 당 매출액은 제조업이 12.2%, 예술·스포츠·여가업이 11.9%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체 소상공인이 -43.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21a). 코로나19의 영향은 비단 노동자, 소상공인 등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임소영, 김태후, 민선형(2021)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2020년 4,503만 원으로 다른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농가 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율이 2019년 7.6%에서 2020년 31.7%로 높아졌다. 이로 인해 도농 간 가구 소득 격차는 2019년 60.4%에서 2020년 65.0%(2인 가구 이상)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임소영, 김태후, 민선형, 2021). 하지만 이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도시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도농 간 가구 소득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농가경제조사를 통한 분석에 불과하며, 이 또한 도시

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가구의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2019~2021년 3분기까지 도시와 농어촌 거주 가구의 소득과 분배 상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가구원 수로 인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각의 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빈곤선 및 분위 설정을 위한 기준소득은 균등화된 가처분소득(=처분가능소득)이다.

## 2.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소득 변화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2)</sup>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발견된 시점은 2020년 1분기로,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시기는 아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변화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1) 가계동향조사는 2016년까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득 및 지출 조사 자료였지만, 2017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국가 소득통계가 변경되면서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의 경우 연간 자료가 아닌 분기 자료로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역할로 변모하였다. 또한 2019년 이후에는 조사 방식과 표본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이전 자료와의 직접 비교가 어려워 여기서는 2019년 이후 도시와 농어촌 가구의 소득과 분배지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표 1>에서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경상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어 코로나19 발생 전후 정부 지원 효과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한 것이다.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제학에서는 가처분소득으로 표현되며, 경상소득에서 사회보험료와 경상조세를 제외하고 산출된다).

표 1. 코로나19 전후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변화

(단위: 천 원/월평균, %)

농어촌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상소득	2,072	2,179	2,391	2,634	2,173	2,331	2,497	2,826	2,358	2,321	2,705
근로소득	1,372	1,368	1,480	1,463	1,418	1,324	1,489	1,427	1,433	1,432	1,470
사업소득	531	631	722	1,025	561	567	749	1,175	622	593	856
재산소득	23	19	12	20	22	13	7	16	22	52	9
공적이전소득	243	235	245	231	285	481	302	271	352	309	427
사적이전소득	171	124	146	103	132	117	108	129	137	110	125
-사적이전지출	282	209	224	220	269	186	167	200	225	186	192
처분가능소득	1,867	1,976	2,154	2,424	1,965	2,133	2,256	2,618	2,138	2,100	2,448
도시	2019년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상소득	2,715	2,672	2,733	2,686	2,808	2,819	2,840	2,738	2,837	2,782	3,092
근로소득	2,040	1,989	2,034	1,975	2,083	1,894	2,029	1,999	2,041	2,014	2,196
사업소득	533	563	560	598	537	537	565	553	526	554	563
재산소득	22	27	19	14	26	18	22	16	21	20	16
공적이전소득	210	178	203	179	232	424	267	220	304	252	356
사적이전소득	155	120	127	106	148	120	124	126	144	123	139
-사적이전지출	252	210	218	194	222	178	170	182	204	185	185
처분가능소득	2,401	2,367	2,385	2,388	2,486	2,520	2,473	2,417	2,505	2,452	2,672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율											
농어촌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상소득					4.9	7.0	4.4	7.3	8.5	-0.5	8.3
근로소득					3.3	-3.2	0.6	-2.4	1.1	8.2	-1.3
사업소득					5.7	-10.2	3.7	14.6	10.8	4.7	14.3
재산소득					-1.6	-31.0	-38.4	-23.7	1.2	287.3	17.1
공적이전소득					17.5	105.3	23.6	17.7	23.3	-35.8	41.2
사적이전소득					-22.7	-6.1	-26.1	25.0	3.8	-5.4	15.7
처분가능소득					5.3	7.9	4.7	8.0	8.8	-1.5	8.5
도시					2020년				202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경상소득					3.4	5.5	3.9	2.0	1.0	-1.3	8.8
근로소득					2.1	-4.8	-0.3	1.2	-2.0	6.3	8.3
사업소득					0.8	-4.6	0.9	-7.5	-2.1	3.1	-0.4
재산소득					15.7	-34.8	18.5	12.1	-19.5	15.4	-25.4
공적이전소득					10.4	138.3	31.2	22.8	30.9	-40.6	33.7
사적이전소득					-4.1	-0.4	-2.1	18.7	-2.9	2.4	12.1
처분가능소득					3.5	6.5	3.7	1.2	0.7	-2.7	8.1

주: 1) 비율(%)은 전년 동 분기 대비 변화.  
 2) 소득과 지출은 균등화 값이며, 소득 산출에는 개인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된 것은 2020년 2~3분기부터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가계동향조사 기준 도농 소득 변화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2019년 이후 대체로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단, 2021년 2분기는 전년 동 분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효과가 줄면서 경상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측면에서 분기별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있었지만, 소득 변화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3)</sup>

하지만 경상소득과 달리 세부 소득별로 보면 농어촌과 도시 지역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을 볼 수 있다. 소득별로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2020년 2분기에 근로·사업·재산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지만,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시장소득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1년에는 도시 지역은 1분기에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였지만, 농어촌은 모두 양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후 2021년 2분기에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공적이전소득이 감소하였다. 이는 2020년 2분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2021년 3분기에는 농어촌에서는 근로소득이, 도시에서는 사업소득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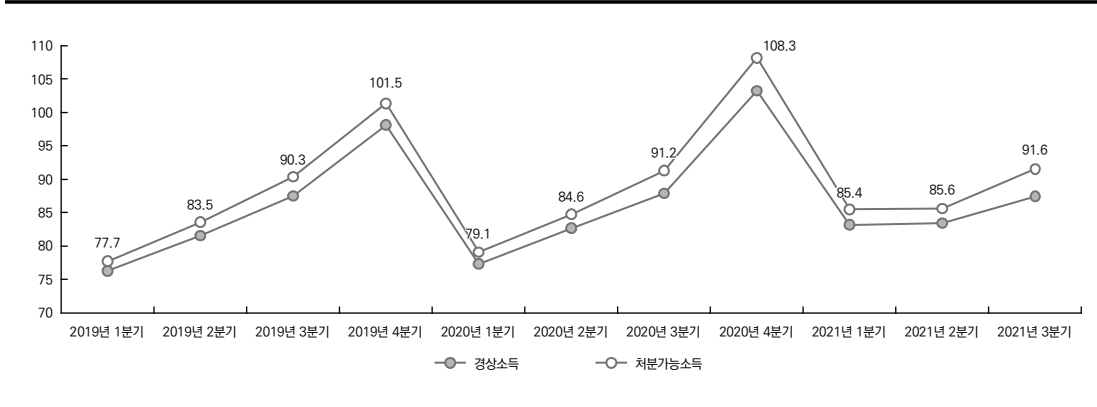
2019년 이후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변화를 보면,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소득 변화가 크지는 않았으며, 분기별로는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이 다소 높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경기 위축이 불안정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은 이들 시장에 참여하는 주민의 규모가 작은 것이 도시에 비해 소득 감소 정도가 낮은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시 거주 주민의 소득 대비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 비율을 보면, 2019년 이후 분기별로 차이가 있다.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큰 시점은 1분기로, 2019년 1분기에는 농어촌 주민 소득이 도시 주민 소득의 77.7% 수준이지만, 이후 증가하여 2021년 1분기에는 85.4%였다. 2019년 이후 1분기의 도시 소득 대비 농어촌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1년 1분기에는 그 차이가 2, 3분기에 비해 작았다(그림 1). 이는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농촌 거주자의 소득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농촌보다는 도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좀 더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에서도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 변화에서 도시는 2021년 1분기에 근로·사업·재산소득 모두 감소하였지만 농촌은 양의 방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농 간 소득이 비슷한 시점은 매년 4분기로, 이 시점에는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소득 수준이 유사하다. 4분

3) 농어촌과 도시 모두 분기별로 소득을 비교하면 계절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은 겨울에 불안정 고용층의 근로소득이 줄어들지만, 농어촌 지역은 겨울에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분기 소득 변화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도시 소득 대비 농어촌 소득 비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기에는 농어촌의 사업소득이 다른 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사업소득 증가에 따라 도농 간 소득 격차 역시 줄어들고 있다.<sup>4)</sup>

### 3. 코로나19 전후 도시와 농어촌의 분배 변화

2019년 이후 2021년 3분기까지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소득분위 비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농어촌 주민은 3분위 이하에서 약 4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 도시 주민의 3분위 이하는 20%대로 농어촌 주민이 상대적으로 하위 그룹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9분위 이상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어촌 주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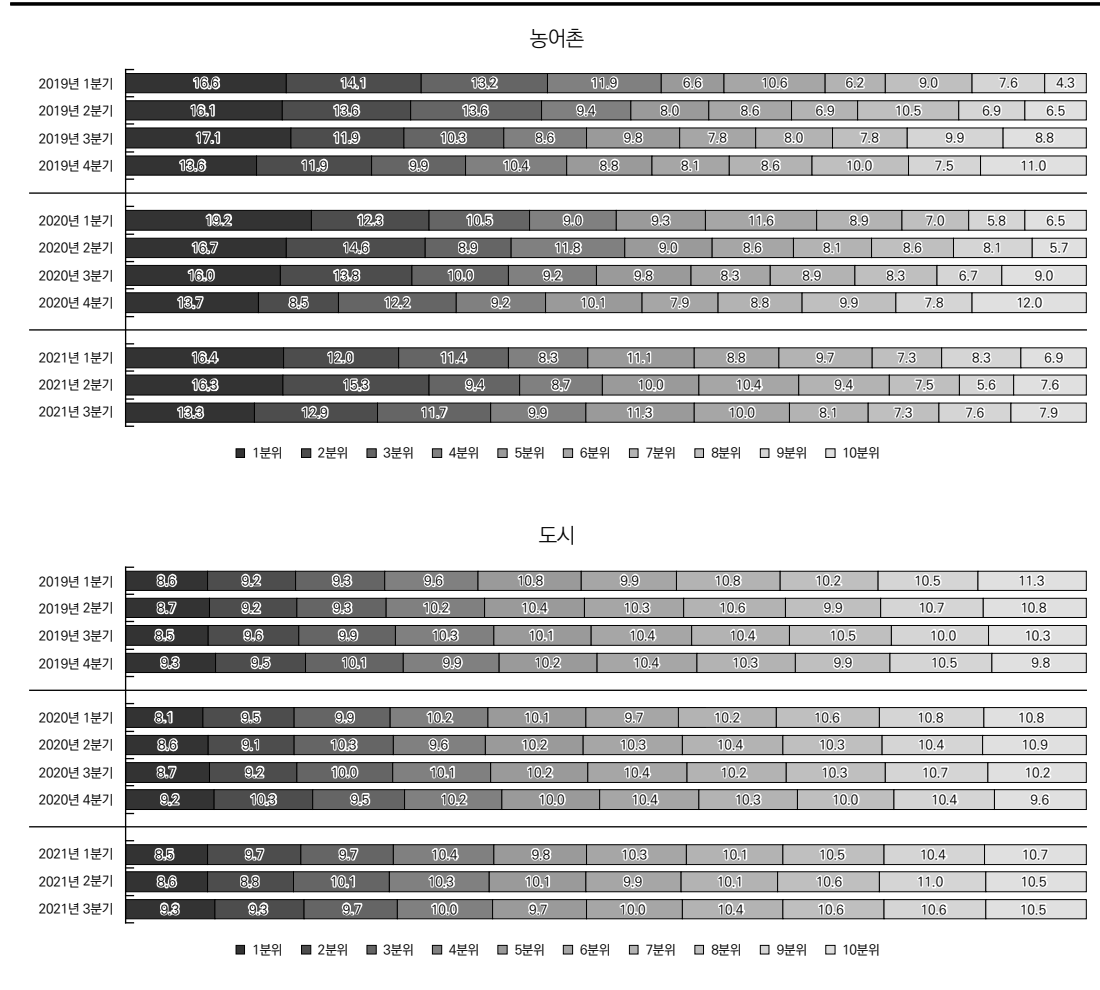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단,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차이가 줄어드는 매년 4분기에는 도농 간 격차가 가장 작다(그림 2).

다음은 소득 수준에 따라 도농 간 분포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중위소득 50% 이하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 비율이 1.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계절적 영향을 받는 농어촌에 비해 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분포의 변화가 크지 않다. 중위소득 50% 기준 상대빈곤율 측면에서 농어촌은 평균적으로 약 20% 이상, 도시는 10%대 초반의 빈곤율을 나타낸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 빈곤율이 대체로 약 10%포인트 높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에서는 코로나19의 영

4) 가계동향조사의 특성상 연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연간 비교는 어렵지만, 4개 분기를 단순 평균해 보면 1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농촌 소득은 도시 소득의 약 80% 중후반대(2019년, 2020년)로 분석된다. 농가경제조사에서 분석된 2인 가구 이상 60%대와 차이가 있다(임소영 외, 2021). 이 같은 차이는 1인 가구 포함 여부에 따른 것일 수 있고, 또 가계동향조사는 읍·면 지역 거주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데 반해 농가경제조사는 농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자료상 차이로 인해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다.

그림 2. 코로나19 전후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10분위 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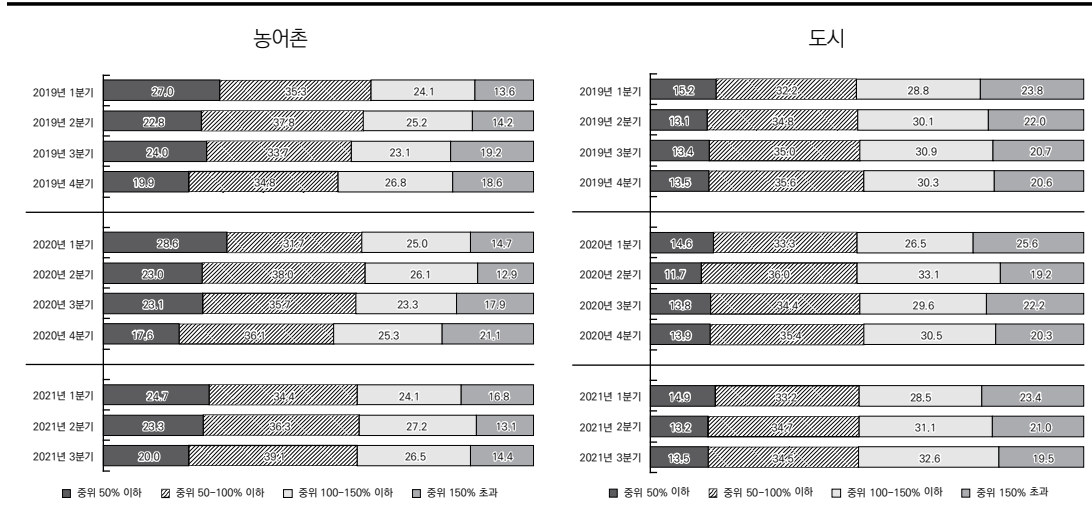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향을 받기 시작한 2020년 1분기에 2019년 4분기 대비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 분기 대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농어촌은 같은 시기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전체로 보았

을 때 농어촌이 도시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이나, 저소득층에 국한하면 농어촌 저소득층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농어촌과 도시의 중위소득 기준 분포 비교

(단위: %)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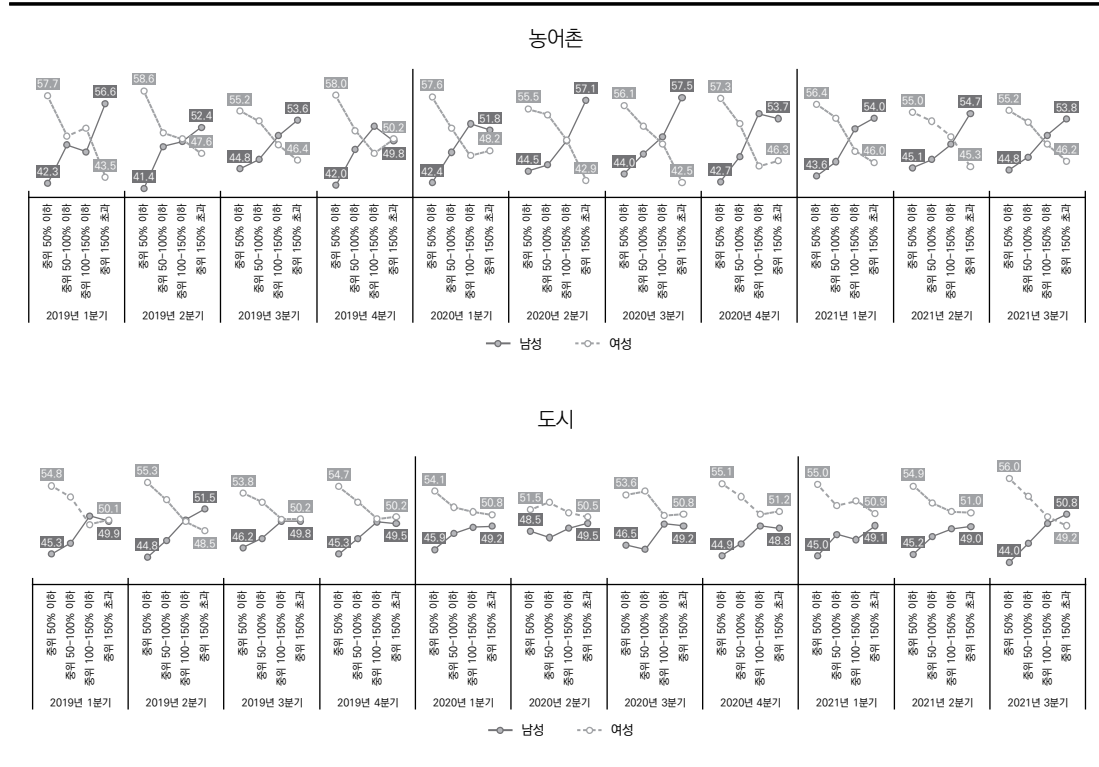
소득 수준에 따른 성별 분포를 보면, 농어촌과 도시 모두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의 분포 차이는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남성이 많이 분포해 있다. 반면 도시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그 격차는 중위소득 100% 초과 구간에서 좁혀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저소득 구간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림어가 수 및 인구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보다 2.6배 높고, 농림어가 경영주의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통계청, 2021b)으로 이러한 특징이 분석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특성으로 농어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2019년 대비 2020년의 남성·여성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경향을 보이는데, 도시의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2021년에는 농어촌 지역은 남녀의 격차가 전년 대비 조금 더 완화된 양상을, 도시는 전년 대비 격차가 커진 양상을 보이며,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낸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농어촌과 도시, 또 각 지역의 남성과

그림 4. 농어촌과 도시의 중위소득 기준 성별 분포 비교

(단위: %)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랐음을 시사한다. 소득 수준에 따른 도농 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보다 농어촌에

서 그 비율이 높았다. 2019년 1분기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율은 농어촌이 61.1%로 도시(38.2%)보다 1.6배 정도 높다. 이는 노인 비율<sup>5)</sup>이 도시(13~14% 정도)에

5) <참고표> 농어촌과 도시의 연령별 분포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2019 1~4분기 평균	29.3	21.0	24.5	25.3	39.2	24.9	22.8	13.2
2020 1~4분기 평균	29.3	20.3	24.2	26.3	38.3	24.5	23.1	14.2
2021 1~3분기 평균	29.2	20.6	24.2	25.9	37.6	23.9	23.9	14.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비해 농어촌(25~26% 정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영향일 수도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저소득 노년층이 도시보다는 농어촌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성별 분포와 비슷한 경향으로, 도시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시점이 변해도 연령별 분포가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 농어촌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서 2019년과 비교해 2020년과 2021년, 즉 코로나19 이후에 65세 이상의 비율은 감소하고 64세 이하의 비율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에는 전년 동 분기 대비 34세 이하가 9.9%에서 16.0%(6.1%포인트↑)로, 35~49세는 7.5%에서 11.5%(4.0%포인트↑)로, 50~64세는 21.5%에서 23.9%(2.4%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코로나19가 농어촌의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농촌 지역의 고용 변화에 따

라 농업 이외에 농업 연관 산업 분야, 교육·문화·보건·복지 분야 등의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마상진, 엄진영, 김태후, 박진우, 2019, pp. 68-74)으로 미루어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별 가구원 수 분포를 보면,<sup>6)</sup> 도시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절반 정도가 1인 가구이며, 농어촌은 대부분 1, 2인 가구의 분포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초기, 즉 2020년 1분기에 농어촌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서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전년 동 분기 대비 2.3%포인트,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3.4%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각 분기에 비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3인 이상 다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1, 2인 가구에 비해 다인 가구는 청장년층 가구주의 비율이 높는데,<sup>7)</sup> 이는 연령별 분포에서 나타났듯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노년층에 비해 청장년층

6) [그림 6] 이전의 분석은 개인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그림 6]은 가구원 수(가구규모)에 대한 분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7) <참고표> 농어촌과 도시의 가구원 수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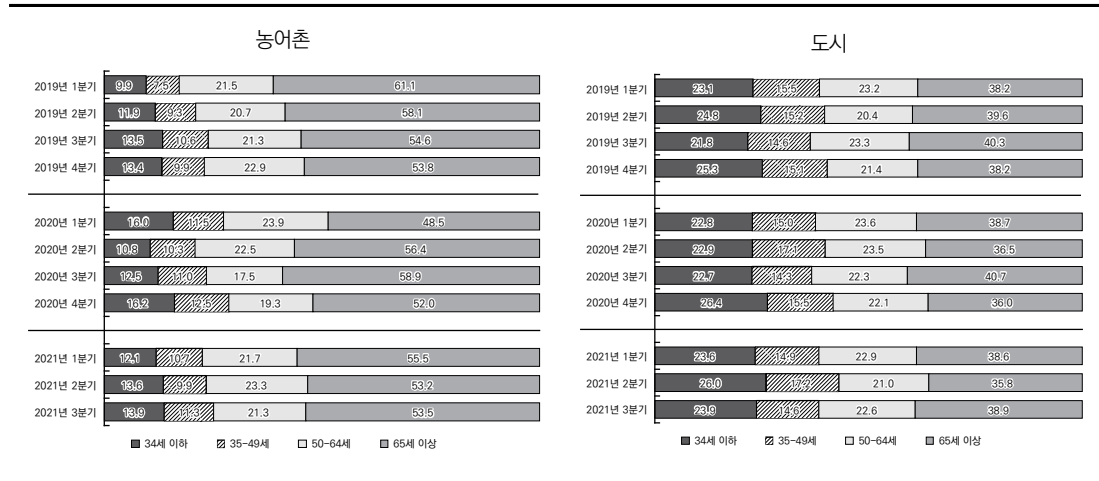
구분		농어촌				도시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2019년	1인 가구	8.7	19.4	25.2	46.8	32.5	23.0	23.5	21.0
1~4분기	2인 가구	2.9	9.8	35.1	52.2	8.5	15.2	40.6	35.7
평균	3인 이상 가구	6.0	50.9	35.0	8.1	7.5	48.6	36.8	7.0
2020년	1인 가구	9.7	17.9	27.9	44.5	31.5	22.7	23.6	22.3
1~4분기	2인 가구	3.0	10.1	33.3	53.6	8.7	15.5	39.5	36.3
평균	3인 이상	7.6	46.8	35.2	10.3	5.6	48.8	37.8	7.8
2021년	1인 가구	11.1	17.2	27.6	44.0	28.3	24.2	24.6	22.8
1~4분기	2인 가구	3.7	9.9	32.6	53.9	9.1	15.5	39.4	36.1
평균	3인 이상 가구	6.4	44.4	36.8	12.4	6.4	46.5	39.4	7.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의 비율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5. 농어촌과 도시의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별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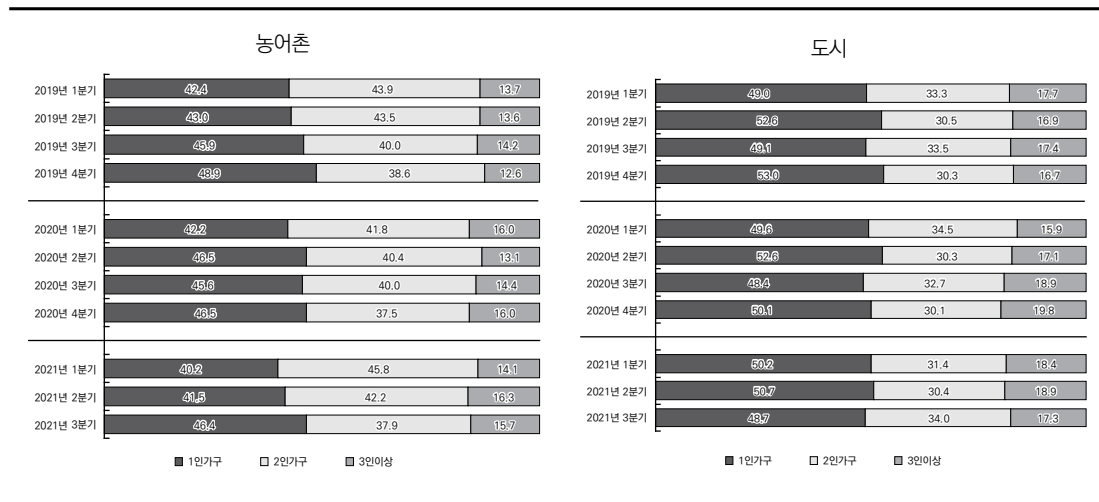
(단위: %)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개인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그림 6. 농어촌과 도시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수별 분포 비교

(단위: %)



주: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가구가중치 적용.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득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은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의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농어촌 거주 주민의 소득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분기별로도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득을 구분하여 보면,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저소득층에 속하는 주민의 비율이 두 배 정도 높고, 상대빈곤율도 대체로 약 10%포인트 높았다. 여러 정부가 지난 기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도농 간 소득 차이가 존재했다. 코로나19 전후 농촌 지역 저소득층의 특징을 보면 소득 저분위에 전통적으로 노인과 여성이 많이 분포하는 특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특이점은 코로나19를 전후로 저분위에 속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 3인 이상 다인 가구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 두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소득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고령층과 청장년층의 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세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양극화 혹은 격차가 도시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 주며, 농어촌 지역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농어촌이 고령화 되면서 발생하는 소득 저하 현상과 농어업의 대규모화, 스마트팜과 같은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되면서 소득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자에 대한 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청장년층이 농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직접적 소득 지원이 제한적일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면 발생하게 되는 지출 비용을 줄여 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통해 청장년이 농어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존 농어촌 거주자와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상반된 특성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농어촌 거주자는 점차 고령화되면서 농업, 기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반면, 귀농·귀촌자 중 청년과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귀농·귀촌 중 귀촌의 비율이 높으며 귀농·귀촌자들은 은퇴 후 농어촌으로 이주한 중장년으로 일정 부분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일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격차 문제는 우선, 농어촌 거주자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와 더불어 귀촌인이 거부감 없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거주 청장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은 향후 귀농·귀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전후 피해를 입은 농어촌 거주 청장년층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 참고문헌

- 김태완, 황도경, 정은희, 최혜진, 이주미, 강예은. (2021). 2021년도 사회보장 인식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마상진, 엄진영, 김태후, 박진우. (2019). 농업분야 고용동향 분석 및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 임소영, 김태후, 민선형. (2021). 2020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요인. KERI 현안분석 8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2021a).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잠정). 2021. 12. 28. 보도자료.
- 통계청. (2021b).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확정). 2021. 9. 28. 보도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각 분기. 원자료.

---

# A Comparison of Changes in Urban and Rural Income during the Covid-19 Period

**Lee, Ju-mi**

**Kim, Tae-w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we analyzed changes in income urban and rural area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using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

When looked at by quarter, rural areas showed a consistent increase in gross income after 2019, whereas gross income for urban areas decreased year-on-year in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of 2021. However, rural residents were mostly in the bottom three income deciles, while only 20% of urban residents were in the same income deciles. The relative poverty rate in rural areas was about 20% or higher, and in urban areas it was around 10%. In rural areas, women and older adults were concentrated the lower income deciles. After the covid-19 breakout, the proportion of young and middle-aged people with an income less than 50% of the median income has increased in rural areas. Before the polarization in rural areas deepens, a plan must be prepared to reduce it.